

【논 문】

## 7세기 고구려와 북방 제민족의 관계 변화

- 630년 이후 북방세력의 재편과 고구려의 외교정책 -

김 지 영\*

### ■ 차 례 ■

1. 머리말
2. 당 건국과 북방 세력의 재편
  - 1) 당 건국~630년 북방세력의 동향
  - 2) 630년 이후 북방세력의 재편
3. 북방 세력에 대한 고구려의 외교 강화
4. 맺음말

### 1. 머리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통된 제도와 문물 체제가 형성되고 확정되는 수 · 당 시기가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한 시기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비교적 짧은 기간 통일국가체를 유지했던 수에 비해 보다 긴 기간 통일된 국가체를 유지했던 당의 시기는 중국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 국가에 있어서도 중요했다. 특히 당의 건국과 성장은 동북아시아 여러 나라의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 시

\* 숙명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기는 동북아시아 삼국(고구려·백제·신라)에서의 역학관계의 변화와 맞물려 당에 대한 외교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던 시기였다. 고구려의 경우 수대부터 지속적으로 통일 중국과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존속을 위해 무엇보다도 주변 제 민족과의 공조가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 이에 7세기 들어 고구려는 남쪽으로는 백제·왜와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통한 공조체제를 마련하고 있다.

고구려는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쪽 지역의 제민족들과의 관계가 중요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중국과 고구려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곳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존재하던 제민족들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당대 고구려의 관계사적 측면에서 북방 제민족들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sup>1)</sup> 그나마 말갈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지만 그것도 관계사적 측면의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sup>2)</sup> 거란에 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발해와 관련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그나마 최근에 와서야 고구려와의 관계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sup>3)</sup>

- 1) 여호규, 2002, 「6세기말~7세기초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현실』46 정도가 수당대 고구려와 북방 제민족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딱히 수당대만이 아닌 전반적인 시기의 북방 제민족들과 고구려의 관계를 다룬 연구로는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姜仙, 2003 『高句麗와 北方民族의 관계 연구-鮮卑·契丹·柔然·突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 한국국사학전공 박사논문; 박경철, 2003, 「高句麗 異種族支配의 實相」 『한국사학보』 15 등이 있으며, 북방 유목민족들의 군사적 활동에 주목해 수당전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활동에 주목한 연구로는 서영교, 2003, 「고구려의 대당전쟁과 내륙아시아 제민족-安市城 전투와 薛延陀-」 『군사』49; 2002, 「나당전쟁기 石門전투」 『동국사학』38이 있다.
- 2) 김종복, 2005, 「高句麗 멸망 전후의 靺鞨 동향」 『북방사논총』 5; 李仁哲, 2004, 「7세기 高句麗 軍事活動의 주요 變數」 『신라문화』24; 金賢淑, 2003, 「6~7세기 高句麗史」에서의 靺鞨」 『강좌한국고대사』10; 李仁哲, 2001, 「6~7世紀의 靺鞨」 『국사관논총』95; 金善昱, 1985, 「高句麗의 隋唐關係研究-靺鞨을 中心으로-」 『백제연구』16; 손영중, 1995 『고구려사』 민족문화; 韓圭哲, 1988, 「高句麗時代의 靺鞨 研究」 『부산사학』14·15
- 3) 이성재, 2005,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對 隋·唐戰爭期 契丹의 動向과 그 意味-」 『북방사논총』5 고구려연구재단

여기에서는 7세기, 특히 돌궐이 멸망하고 난 630년 이후를 중심으로 북방 제 민족들이 고구려와 당에 어떤 식으로 귀부 혹은 이탈을 거듭해 갔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고구려의 북방민족에 대한 외교정책의 변화와 그 과정 및 결과를 추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거란과 해, 습, 실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돌궐과 철륵(설연타 포함)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대략적인 변화의 내용 정도만 참고하고자 한다. 이들 제 민족들의 당이나 고구려로의 귀부와 이탈 이유 등에 대해서는 사료의 부족 및 중국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무리한 추정을 가할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밝혀두고자 한다.

## 2. 북방세력의 재편

### 1) 당건국 ~ 630년까지 북방세력의 동향

618년 5월 당 高祖가 즉위하자 바로 다음해인 619년 2월 고구려는 당에 사신을 보내<sup>4)</sup> 당과의 화친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고구려는 당에 지속적으로 사신을 보내면서 표면적으로는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당 역시 624년 1월 고구려 영류왕을 요동군왕에 책봉하는 등<sup>5)</sup> 건국 초반에는 고구려와 화친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돌궐의 경우는 오히려 당 초기의 혼란함을 틈타 당의 변경을 노략질하고 있다. 619년 4월 돌궐의 始畢可汗 사후 621년 4월 돌궐의 당에 대한 침입이 시작되고 있다.<sup>6)</sup> 이후 돌궐은 621년 8월 다시 당의 변경을 침입

4) 『三國史記』 권 20 고구려본기 제8 영류왕 2년.

5) 『舊唐書』 권1 高祖 武德 7년.

6) 『新唐書』 권1 高祖紀 武德 4년.

하고 있으며<sup>7)</sup> 622년 4월에도 당과 전투를 벌이고 있다.<sup>8)</sup> 게다가 622년 6월에는 당에 대한 반란 세력인 劉黑闥과, 623년 9월에는 高開道와 합세하여 당을 공격하고 있다.<sup>9)</sup> 622년 8월에는 頡利可汗이 다시 당의 雁門을 침입하고 있으며, 623년 7월에도 역시 힐리가한이 당의 朔州를 침략하고 있다.<sup>10)</sup> 또한 624년 10월, 625년 6월과 8월<sup>11)</sup>까지 지속적으로 당을 침략하였으나, 다음해인 626년 8월 당을 침략한 힐리가한이 이후 태종이 되는 이세민과 화친의 맹약을 맺고 물러나면서, 이 해에 당에 사신까지 보내고 있다.<sup>12)</sup> 또한 628년 8월에는 돌궐이 당에 화친을 요청하는 등<sup>13)</sup> 626년 8월 이후 당과 돌궐은 한동안 평화관계를 유지하다가 629년 8월이 되면 오히려 당이 돌궐에 대한 정벌을 감행하고 있다.<sup>14)</sup> 그 결과 629년 12월에는 돌궐의 突利可汗이 당으로 來奔해 오는 등 이탈 세력이 발생하고 결국 630년 3월 돌궐의 頡利可汗이 생포되면서<sup>15)</sup> 당이 돌궐을 제압하게 된다.<sup>16)</sup>

거란의 경우 역시 당 초인 무덕 初에 자주 당의 변경을 공격하고 있으며, 619년에는 당의 平州를 공격하고 있다.<sup>17)</sup> 그러나 621년이 되면 거란 別部

7) 『新唐書』 권1 고조기 무덕 4년.

8) 『舊唐書』 권1 고조 무덕 5년.

9) 『舊唐書』 권1, 고조 무덕 5년, 무덕 6년.

10) 『舊唐書』 권1, 고조 무덕 5년, 무덕 6년.

11) 『舊唐書』 권1 고조 무덕 7년, 무덕 8년.

12) 『舊唐書』 권2 태종 무덕 9년.

13) 『新唐書』 권1 고조기 무덕 9년. 이 시기가 되면 당이 내부의 반란 세력들을 거의 모두 진압하고 통일을 완성하고 있다.

14) 『新唐書』 권 2 太宗紀 貞觀 3년. 김호동은 이러한 당군의 태도변화는 627년 이후 돌궐에 예속되어 있던 설연타·발야고·회홀 등의 부족이 반란을 일으키는 등 사실상 내부적으로 돌궐의 붕괴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결과라고 보고 있다.(金浩東, 1993,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133쪽.)

15) 『舊唐書』 권2 태종 정관3년, 정관4년.

16) 서돌궐의 경우는 이와는 달리 당의 건국 직후인 618년 7월 당에 사신을 보내 내부하였으며, 619년 7월, 620년 3월, 629년 3월에도 연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당 역시 634년 3월 고조가 서돌궐 사자에게 연회를 베푸는 등 서돌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화친을 유지했다고 보여진다.(『舊唐書』 권1 고조 本紀)

의 酋帥인 孫敖曹가 말갈의 酋長인 突地稽와 함께 일찌감치 당에 사신을 보내어 內附하자 당은 營州城 옆에 이들을 안치하고 있다.<sup>18)</sup> 이어서 623년 君長 咄羅가 당에 사신을 보내어 공물을 바치고<sup>19)</sup> 628년 4월 君 摩會가 부락을 이끌고 항복하고 있으며<sup>20)</sup>, 629년 1월에 거란의 渠帥가 내조하는 기록이 나오는데<sup>21)</sup> 이때의 거란 거수는 마회로 628년 이후 마회가 완전히 친당적인 세력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해의 경우 역시 武德 연간(618~626)에 당의 내란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반란 세력의 하나인 高開道를 도와 幽州를 공격한 것으로 나온다.<sup>23)</sup> 그러던 것이 『구당서』에는 무덕 연간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한 것으로 나오고<sup>24)</sup> 『신당서』에 다시 629년 처음으로 당에 내조하여 17년 동안 (629~646) 4번 조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sup>25)</sup> 해는 626년 당과 돌궐이 잠정적인 휴전상태에 돌입하게 되면서 돌궐과 함께 당에 사신을 파견하고 조공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6)</sup> 628년 돌궐이 당에 화친을 먼저 요청하는 가운

17) 『舊唐書』 열전 149 北狄傳.

18) 『舊唐書』 열전 149 북적전.

19) 『舊唐書』 열전 149 북적전.

20) 『舊唐書』 권2 태종기 정관 2년 『舊唐書』 열전 149 북적전에 동일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때 마회가 당에 내항하자 돌궐 헐리가한이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 마회의 거란세력은 돌궐의 세력권에 포함되어 있던 세력으로 추정할 수 있다.

21) 『舊唐書』 권2 태종기 정관 3년

22) 『新唐書』 열전 북적전에 이때 마회가 입조하였다고 되어 있고, 이후로 常貢이 있었다고 되어 있다.

23) 『新唐書』 열전 144 북적전에는 무덕중으로 되어 있으나 『舊唐書』 태종 본기에 의하면 623년에 고개도가 돌궐을 이끌고 유주를 공격하는 기사가 있는데 아마도 이때 돌궐과 함께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24) 『舊唐書』 열전 북적전 149에 武德中에 건사내조하였다고 하였는데 『新唐書』 열전 북적전 144에는 629년 처음으로 내조하였다고 하였다. 『舊唐書』 내용이 『新唐書』가 빠뜨린 부분을 더 기록한 것이라고 본다면 629년의 내조는 2번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5) 『新唐書』 열전 북적전 144.

26) 『舊唐書』 권2 태종 무덕 9년 是歲. 이 때 돌궐이 신라·구차·고려·백제·당항 등과 함께 조공한 것으로만 나타나고 있으나 북적전에 무덕연간에 해가 당에 사신을 보내

데 거란의 일부 세력이 당에 내항하고 이에 대해 돌궐이 항의를 하고 있지만 당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sup>27)</sup>에도 불구하고 돌궐이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고, 629년 돌궐의 내분으로 인해 돌리가한이 당에 망명하는 일련의 사건을 접하면서 해 역시 자연스럽게 당에 귀부하여 간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또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들 해의 조공 시기가 고구려의 당에 대한 조공 시기와 겹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무덕연간의 조공 경우는 해가 고개도와 함께 당의 유주를 공격한 것이 623년이므로 623~626년 사이의 시기에 조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629년 이후 4번이나 당에 조공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때는 돌궐이 당에 의해 공격을 받고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때(623~626)의 조공은 고구려와 함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그것은 곧 해가 고구려 영도 하에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sup>28)</sup>

다만 해가 고구려의 영도 하에 있었다고 파악하더라도 623년 고개도와 함께 당을 침략한 것은 돌궐과 함께였다는 것이기도 하므로 이 당시에는 돌궐에 부용 되어 있었다가 626년 돌궐이 당태종의 군세에 압도되어 2차 회맹을 맺자 돌궐에서 이탈해 나간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신당서』 북적전의 기록에 629년 처음으로 내조하였다는 것을 기록 그대로 처음이라고 본다면 626년과 629년에 내조한 해가 각기 돌궐과 고구려에 별도로 속해 있던 세력이라고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위의 경우도 해와 마찬가지로 무덕 연간에 한번 방물을 바쳤고 다시

---

어 조공한 기사는 아마도 이때의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7) 『舊唐書』 열전 149 북적전.

28) 여호규, 앞의 논문, 11쪽에 말갈과 고구려의 건수사 파견 시기가 거의 겹치는 사실들 들어 말갈의 건수사 파견이 고구려의 동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시기의 해의 경우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629년에 사신과 함께 방물을 바쳤으며 이후로 조공이 끊이지 않았다는 기사가 보이고 있다.<sup>29)</sup> 특히 629년에는 거란과 해 뿐만 아니라 설연타<sup>30)</sup>와 실위, 습<sup>31)</sup> 등도 당에 사신을 보내고 있다. 630년의 돌궐 힐리가한 생포 이후 북방 제민족들은 빠르게 당에 귀부해 가고 있다. 그 결과 630년을 즈음하여 말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북방 민족들이 당 측에 속하게 됨에 따라<sup>32)</sup> 설연타의 대두 이전까지 고구려는 더 이상 북쪽으로 제후할 수 있는 세력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 2) 630년 이후 북방세력의 재편

630년 이후 중국과 제 북방민족의 외교관계를 신·구당서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630년 이후 북방 제민족과 당의 외교관계

서력	중국	대상국	내 용	출 전
631	정관 5	실위	사신을 보내 조공하기 시작	신당서-북적전
632	정관 6	오라혼	君長이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침	구당서-북적전
633	정관 7	설연타	1월 당에 내조함	구당서-본기
639	정관 13	돌궐	8월 당이 李思摩를 돌궐가한으로 삼아 황하 북쪽에 아장을 세우도록 함	구당서-본기

29) 『舊唐書』 열전 149 북적전. 실위의 경우 해와 비슷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 같다.

30) 『舊唐書』 권2 태종 정관 3년 8월 己巳.

31) 『舊唐書』 열전 149 북적전.

32) 『舊唐書』 권 3 태종 정관 4년 4월 丁酉조에 의하면 이 때 서북의 諸蕃이 모두 태종의 존호를 「天可汗」이라 할 것을 청하자 태종이 곧 그것을 검정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와 북방뿐 아니라 서번 세력 역시 대부분 당에 내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력	중국	대상국	내 용	출 전
640	정관 14	돌궐	3월 당이 寧朔大使를 설치하여 돌궐을 방어함	구당서-본기
		설연타	6월 당에 사신을 파견해 청혼함	구당서-본기
641	정관 15	설연타	11월 同羅·僕骨·迴紇·靺鞨·靺之 무리를 이끌고 백도천에 주둔→12월 諾眞水에서 이적에게 패배하여 도주	구당서-본기
		거란·해·습	11월 영주도독 장검이 소속 기병과 해, 습, 거란을 인솔하여 설연타의 동쪽 경계를 압박함	자치통감
		돌궐	12월 이적이 돌아오면서 돌궐 思結을 五臺縣에서 공파	구당서-본기
643	정관 17	설연타	眞珠可汗이 조카인 突利設을 보내 청혼	구당서-본기
644	정관 18	거란·해·말갈	7월 營州都督 張儉을 보내 幽·營의 도독병과 거란·해·말갈로 하여금 요동을 먼저 공격하여 고구려의 勢를 살피게 함 12월 당이 신라·백제·해·거란에게 조를 내려 고려를 공격하게 함	구당서-본기
645	정관 19	설연타	12월 진주비가가한이 죽음	구당서-본기
		거란·해	고구려 공격 시 거란의 추장과 해의 수령을 징발해 중군케 함 당 태종이 反師할 때 영주에 이르러 거란의 군장 및 노인 등을 모아 물건을 내려주고 그 번장인 굴가를 좌무위장군으로 삼음	신당서-북적전
646	정관 20	설연타	1월 설연타와 당 교전 6월 崔敦禮와 이적이 鬱督軍山에서 설연타 격파	신당서-본기 구당서-본기
		철록	8월 회홀·발야고·동라·복골 등 철록 11성이 당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함 9월 철록 제부들이 연달아 사신을 파견하여 관리의 설치와 태종을 천가한으로 삼기를 요청	구당서-본기

서력	중국	대상국	내 용	출 전
647	정관 21	철록	1월 철록 제부를 주현으로 삼고 3일간 당의 경사에서 연회	신당서-본기
		돌궐 등	당이 돌궐 북쪽에서 회홀 부락에 이르기까지 역 66소를 설치하여 북쪽 황무지와 교통	구당서-본기
648	정관 22	설연타	9월 阿史那社爾가 설연타의 잔여 부락인 處月과 處蜜 정벌	신당서-본기
		거란·해	거란의 대추장 육홀주 곡거가 무리를 이끌고 귀부하니 그 부를 현주로 삼고 곡거를 자사에 임명하고 영주도독부에 속하게 함 11월 거란의 窟哥와 해의 可도가 당에 내속→거란부 송막도독, 해부 요락도독 설치, 굴가는 좌령군장군겸 송막도독부 무극현남으로 삼고 이씨 성사여	신당서-북적전 구당서-북적전 구당서-본기
660	현경 5	거란·해	굴가가 죽자 거란이 해와 더불어 모반→아사덕추빈 등이 송막도독 아복고를 생포하여 동도로 이송 가도자가 죽자 해가 마침내 배반→아사덕추빈과 이함주로 하여금 정벌케 함 5월 阿史德樞賓으로 하여금 거란 정벌케 함 12월 아사덕추빈이 해·거란 격파	신당서-본기 신당서-북적전 자치통감
		철록	8월 鄭仁泰가 철록 제부(실결·발야고·복골·동라) 격파	신당서-본기
661	용삭 1	해	최여경 등으로 해를 토벌케 하니 해가 두려워 항복→해의 왕인 필제를 참함	신당서→북적전
		철록	정인태, 소사업, 아사나충으로 하여금 철록 정벌	신당서-본기
662	용삭 2	철록	3월 정인태가 天山에서 철록 격파	신당서-본기
663	용삭 3	철록	1월 정인태 등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철록의 남은 종족 정벌하여 모두 평정	구당서-본기

북방의 돌궐세력을 제압한 당은 634~635년에 거쳐 토욕혼 정벌을 시작으로<sup>33)</sup> 639~640년 고창<sup>34)</sup> 644년 언기<sup>35)</sup>, 648년 구차<sup>36)</sup> 정벌 등 당의 서쪽 지역에 대한 세력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640년이 되면 설연타가 당에 청혼을 요청할 만큼 세력이 성장하여 641년 11월에는 돌궐을 공격하기 위해 설연타가 철록 제부와 말갈·습의 무리를 이끌고 白道川에 주둔하는 사건이 발생한다.<sup>37)</sup> 즉 630년 돌궐의 몰락 이후 설연타가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하여 불과 10년 내외에 그 힘이 상당히 커지면서 돌궐을 대신해 철록 제부 및 말갈·습 등의 일부 북방 민족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때에도 해와 거란은 설연타와 군사적 행동을 함께 하지 않고 오히려 설연타를 막기 위한 군사 징발에 응하고 있어<sup>38)</sup> 이 시기에 이미 이들은 당에 완전히 귀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644~645년 고구려 정벌을 위한 군사징발에 그 이름이 들어가 있으며, 645년 당태종이 反師하면서 영주지역에 이르러 이들 거란의 군장들을 모아 위로하고 그 번장인 굴가를 좌무위장군으로 삼은 것이나, 648년 거란과 해의 굴가와 가도가 당에 내속하는 기사 등으로 볼 때 이들 세력은 돌궐의 세력이 약해지는 628~629년 사이에 친당적인 세력으로 돌아선 후 660년 이전까지는 완전히 당에

33) 『舊唐書』 권 2 태종 정관 8년, 9년.

34) 『舊唐書』 권 3 태종 정관 12년, 13년.

35) 『舊唐書』 권 3 태종 정관 18년.

36) 『舊唐書』 권 3 태종 정관 23년.

37) 『舊唐書』 권 3 태종 정관 15: 『舊唐書』 열전 149 북적전. 김호동은 당시 당이 漠北은 설연타에게 漠南은 돌궐에게 나누어 다스리게 했는데 설연타가 돌궐이 자주 양마를 도적질 한다는 이유를 들어 돌궐을 공격한 것이라고 하였다.(김호동, 앞의 논문)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때 돌궐의 이사마를 공격하는 행위는 당을 공격하는 행위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때문에 당이 직접 이적을 보내 설연타를 정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때 설연타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적이 돌궐 思結을 함께 공파하고 있는 사실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38) 『資治通鑑』 권196 唐紀12 태종 정관 15년.

편입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말갈이나 습·실위 등은 이후 고구려 정벌에서도 빠져 있고 조공 기사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아 이들은 당이 아닌 설연타 혹은 고구려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39)</sup> 다만 습의 경우 641년 영주도독인 張儉이 자신의 소속부의 기병과 함께 해, 습, 거란의 병사를 동원하여 설연타를 막고 있었던 사실을 통해 볼 때 일부세력은 당 측에 속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41년 사건에서 보듯 당의 북방 제민족들에 대한 영향력을 일부 흡수한 설연타는 645년 당의 고구려 정벌 실패와 진주비가가한의 죽음 이후인 646년 1월 당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에 나서고 있으며, 그 결과 646년에는 그 주력이 당에 의해 정벌되고 있다. 이와 함께 646년 8월 이후 설연타에 속해 있던 철륵의 제부들이 앞 다투어 당에 귀부하고 있으며, 태종을 가한으로 삼아 그 아래에 완전히 복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648년 9월 설연타의 잔여부락인 처월과 처밀까지 당에 의해 완전히 정벌되자 같은 해 11월에 거란과 해는 완전히 당에 내속하여 송막도독부와 요락도독부의 설치로까지 나아가게 된다. 특히 654년 말갈과 고구려가 함께 거란을 공격할 때까지도 거란은 강건하게 당 측에 서서 고구려에 대항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660년이 되면서 일찍부터 당에 귀부하여 충실한 당의 파트너로서 역할 하던 거란과 해가 갑자기 당에서 돌아서고 있으며, 같은 해 8월에는 철륵의 제부들 역시 당에서 이탈하여 663년 잔여 부락이 모두 소탕될 때까지 당의 북쪽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660년 백제를

39) 박경철, 앞의 논문, 301쪽에 의하면 6세기 중엽 이후 고구려가 『新唐書』 북적전에 나오는 고구려가 실위에 부족한 금과 철을 공급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세력 부식을 성공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습이나 실위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고구려의 세력권에 편입하고 있었거나 돌궐이나 설연타 세력권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다만, 어떤 경우든 당의 세력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떨망시키고 난 이후 그 여세를 몰아 고구려에 대한 집중 공세를 가하던 당에게 있어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며, 662년까지 고구려를 강하게 공격하던 당이 고구려 공격에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을 것이다. 이러한 북쪽세력의 당군에 대한 군사 분산 효과와 함께 전방위적인 고구려 공격에 있어서의 또 다른 후방이 되는 한반도 내에서의 백제-왜 연합군의 당군의 군사력 분산 효과 역시 주목해 볼 수 있다.<sup>40)</sup>

### 3. 북방 세력에 대한 고구려의 외교 강화

한편 다음의 (표2)에서 보듯 고구려와 당의 관계는 630년 이후 9년 정도 공식적인 사신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630년 이후 당의 북방 제민족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자 고구려는 군비 확충과 천리장성 축조 등을 통해 당의 공격에 대비하는 한편 말갈을 제외한 거란 등의 북방 민족 역시 경계하고 있다.<sup>41)</sup> 639년 고구려가 당에 다시 조공을 시작하는 시기는 당이 李思摩를 可汗으로 삼아 漠南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설연타 夷男과 분쟁의 소지가 생긴 때이다.<sup>42)</sup> 또한 이후 지속적으로 설연타의 힘이 커짐으로써 당의 북방에서 당을 견제할 세력이 생기면서 고구려는 당에 대한 조공·책봉 관계를 다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40) 김지영, 2005, 「8세기 고구려 대왜 관계의 변화-630년을 기점으로-」 『역사와현실』 57 163~165쪽에서는 이러한 백제-왜 연합군의 군사행동 역시 고구려와 연계된 것으로, 7세기 고구려의 적극적인 대왜교섭의 결과로 파악하였다.

41) 余昊奎, 2000, 「高句麗 千里長城의 經路와 築城背景」 『國史館論叢』 91 176~191쪽.

42) 『舊唐書』 열전149 북적전. 설연타의 이남이 사마를 싫어했다고 했으며, 이 때문에 641년 태종이 태산 봉선을 위해 낙양으로 행차한 틈을 타 이남을 제거하기 위해 백도천으로 나아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제 북방 민족들 간의 관계들을 고구려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표2) 630년 이후 고구려와 당의 관계

서력	고구려	중국	내 용	출전
631	영류왕 14	정관 5	8월 당이 사신을 보내어 고구려가 세운 京觀을 허물고 隋人의 해골을 거두어 장사지냄	구당서-본기 삼국사기
639	영류왕 22	정관 13	당에 견사조공	구당서-본기
640	영류왕 23	정관 14	12월 고구려 세자 환권이 당에 입조	구당서-본기 삼국사기
642	보장왕 1	정관 16	1월 당에 견사조공	삼국사기
643	보장왕 2	정관 17	1월 당에 견사조공 3월 당에 사신을 보내 도교를 구함 9월 당의 상리현장이 새서를 가지고 고구려에 파견됨	삼국사기 구당서-본기
644	보장왕 3	정관 18	1월 당에 견사조공 2월 상리현장이 당에 귀국하여 고구려 정벌 논의 9월 연개소문이 백금을 당에 바침	삼국사기 구당서-본기
645	보장왕 4	정관 19	2월 당 태종의 고구려 친정 9월 당 태종이 군사를 돌림	삼국사기 구당서 신당서
646	보장왕 5	정관 20	5월 당에 사신을 보내 사조하고 미녀 2인을 바침	삼국사기
647	보장왕 6	정관 21	3월 당이 고구려에 대한 국지전 개시 5월 이적이 남소·목저성 함락 7월 우진달이 석성 함락 12월 보장왕의 둘째 왕자인 임무를 당에 보내 사죄	구당서-본기 삼국사기
648	보장왕 7	정관 22	1월 당에 견사조공 1월 당이 설만철로 하여금 고구려 공격 6월 설만철이 박작성 공격하여 고구려 패배시킴	삼국사기 신당서-본기
652	보장왕 11	영휘 3 (고종)	1월 당에 견사조공	삼국사기 자치통감

서력	고구려	중국	내 용	출전
654	보장왕 13	영휘 5	10월 고구려가 말갈 군사를 동원해 거란을 공격하였으나 패함	삼국사기
655	보장왕 14	영휘 6	3월 정명진이 귀단수에서 고구려 격파	구당서-본기
656	보장왕 15	현경 1	12월 당에 사신을 보내 황태자 책봉을 축하함	삼국사기
658	보장왕 17	현경 3	6월 정명진이 고구려 공파함 6월 정명진·설인귀가 고구려 공격하였으나 패함	구당서-본기 삼국사기
659	보장왕 18	현경 4	11월 당과 고구려가 횡산에서 교전→고구려 승리 <sup>43)</sup>	삼국사기
660	보장왕 19	현경 5	12월 契苾何力·소정방·劉伯英으로 하여금 고구려 공격	신당서-본기
661	보장왕 20	현경 6 (용삭 1)	1월 소사업으로 하여금 고구려 정벌케 함 4월 입아상, 계필하력, 소정방, 소사업, 정명진, 방효태로 하여금 고구려 정벌케 함 8월 소정방이 패강에서 고구려 격파 9월 고구려의 남생이 압록수에서 계필하력에 게 패함→당 고종의 조서로 당군 철수	신당서-본기 삼국사기
662	보장왕 21	용삭 2	1월 연개소문이 당군 격파 2월 입아상이 군중에서 사망, 방효태 고구려와 사수에서 싸우다 전사 3월 소정방이 위도에서 고구려 격파하고 평양으로 진공하였으나 이기지 못하고 귀환	삼국사기 신당서-본기 구당서-본기
665	보장왕 24	인덕 2	10월 고구려 태자 복남이 당에 입조하여 조공	삼국사기
666	보장왕 25	건봉 1	1월 태자 복남이 당고종의 태산 봉선에 참석 6월 연개소문의 아들 남생이 그 아들 현성을 시켜 항복하고 망명을 청함 9월 방동선이 고구려 격파 12월 이적이 고구려 정벌	삼국사기 구당서-본기 신당서-본기
667	보장왕 26	건봉 2	9월 이적이 고구려와 싸워 신성전투에서 승리 9월 설인귀가 남소·목저·창암성 함락시킴	신당서-본기 자치통감

43) 『舊唐書』 열전 설인귀전에 이때의 고구려 대장이 溫沙門이라고 되어 있음.

서력	고구려	중국	내 용	출전
668	보장왕 27	총장 1	2월 당이 설하수에서 5만인을 물리침, 이적이 고구려를 물리치고 부여, 남소, 목저, 창암성 극함 9월 이적이 고구려 격파하고 평양성 빼앗은 뒤 고구려 왕 고장과 대신 남건 등을 생포 12월 고구려왕 고장을 이송	구당서-본기 신당서-본기

이것은 고구려가 설연타와 기존부터 고구려에 부용하고 있던 말갈세력 등을 통해 당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실제로 645년 당 태종의 친정 실패 이후인 646년 1월 설연타는 당을 직접 공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연타의 공격에 대해 645년 진행된 고구려의 외교교섭을 지적할 수 있다.<sup>44)</sup> 이때의 설연타에 대한 외교교섭에 있어 한 가지 더 주목되는 것은 고구려가 설연타로 사신을 파견하는 경로이다. 이 시기에 있어 고구려가 말갈을 통해 설연타에 사신을 파견하려 했을 때 설연타로 가는 경로에는 거란, 습, 실위 등의 북방 민족이 그 길목을 점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당시 거란과 습의 일부 무리는 당 측에 서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고구려가 택할 수 있는 경로는 실위를 통한 경로였을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기사가 『신당서』 실위전에 실위에는 金鐵이 나지 않아 고구려와 무역하여 이것을 구했다는 기사이다.<sup>45)</sup> 조금 앞선 시기이기는 하지만 『수서』 실위전에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sup>46)</sup> 즉, 고구려는 남실위 지역에 생산되지 않는 물자인 철을 공급함으로써 일정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이다.<sup>47)</sup> 629년 실위가 비록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공물을 바

44) 『資治通鑑』 권 198 당기 14 태종 정관 19년. 金善昱, 앞의 논문, 16쪽 ; 서영교, 2003, 앞의 논문, 쪽.

45) 『新唐書』 권219 열전 제144 복직전.

46) 『隋書』 권84 열전 제49 복직전.

47)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424쪽.

치고는 있지만 641년 설연타의 군사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강고하게 당 측에 속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일찍부터 당에서 이탈하여 고구려 측에 보다 가깝게 속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645년 고구려가 말갈을 통해 설연타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도 실위를 통과해서였을 것이며, 이렇게 볼 때 645년 이전에 실위 역시 고구려 측에 속해 있던 세력으로 볼 수 있다.<sup>48)</sup>

또한 고구려는 630년 이후 북방에 대한 외교교섭 뿐 아니라 남방으로도 외교교섭 강화 노력을 하고 있었다. 630년 이후 왜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군사적 외교를 진행시켰으며, 백제와도 평화관계를 유지하면서<sup>49)</sup> 642년의 당항성 공격 등 군사 행동까지 같이 하기도 한다.<sup>50)</sup>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고구려가 과연 당 이외의 주변국들에 대한 외교교섭을 강화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다만 654년 10월 말갈병을 동원해 거란을 공격한 것<sup>51)</sup>이나 655년 말갈병을 동원하고 백제와 연합해 신라의 北境을 공격<sup>52)</sup>하거나 하는 모습은 고구려가 당에 우호적인 세력을 공격함으로써 친당적인 세력에 대해 평화적인 혹은 실리적인 외교협상으로 흡수할 수 없었던 경우 군사적인 힘의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630년 이후 어느 시기엔가 고구려는 당을 제외한 주변 제민족

48) 노태돈, 1999 『고구려사연구』, 539~543쪽의 논의를 여기에 연관시켜 생각해 볼 때 실위와 설연타로 이어지는 경로를 통해 고구려가 아프리카시압 궁전에 벽화로 그 사신의 모습을 남길 만큼 보다 멀리 나아갔음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고구려가 지속적으로 서북쪽으로 지역을 넓혀 가며 당에 대한 견제세력을 찾아갈 만큼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9) 『三國史記』에 의하면 607년 이후 고구려와 백제가 실제적으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킨 기사는 보이지 않으며, 626년 백제가 당에 고구려의 입조 방해를 호소하는 표를 올린 사건 이후 642년 고구려와 백제와 함께 군사적으로 연합하여 신라 당항성을 공격하기까지의 어느 시점에서인가 백제와 제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0) 『三國史記』 권 5 신라본기 선덕왕 11년.

51) 『三國史記』 권 22 고구려본기 보장왕 13년.

52) 『三國史記』 권 22 고구려본기 보장왕 13년.

에 대한 전체적인 외교 강화 노선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sup>53)</sup> 또한 이러한 고구려의 외교 강화 노력은 645년 친정 실패와 지속적인 당의 고구려에 대한 국지적 공격의 실패와 맞물려 북방 세력, 특히 해와 거란의 당 측으로부터의 이탈을 초래하고 있다.

즉, 660년 이후 이전까지 당의 편에 속해 있던 북방 제민족들 중 제법 커다란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당 측에서 이탈해 나가고 있다. 먼저 당이 백제에 대한 정벌을 마치고 그 여세를 몰아 12월 고구려에 대한 정벌을 감행하던 660년 3월~12월 사이인 5월 당의 정양도독 아사덕추빈이 거란과 해를 정벌하고 있다.<sup>54)</sup> 이에 대해 『신당서』에는 굴가의 사후 해와 거란이 함께 연결하여 반란을 일으켰다고 소략하게 기록하고 있다.<sup>55)</sup> 654년까지는 당에 내부하여 고구려와 말갈 연합군의 공격을 맞아 싸우던 거란이 660년 오히려 당에 의해 정벌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이후 668년 고구려의 멸망 때까지 당의 고구려 공격 때 거란과 해의 참전 기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666년 남생이 당으로 망명할 때 다수의 말갈과 거란병을 이끌고 오는 것으로 보아 거란의 대다수가 661년 이후 고구려에 대해 군사적인 협력 관계로 돌아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sup>56)</sup>

53) 고구려의 주변 제민족들에 대한 외교 강화 노선은 당에 대한 강경책과 맞물려 있다고 볼 때, 630년 이후 고구려 내부에서 대당강경파가 대두되어 642년 연개소문 정변으로 인해 정권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이들 세력과 일정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630년 이후 대당강경파의 득세 및 연개소문 정권과 대당강경파의 관계에 대해서는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300~303쪽 참고.

54) 『新唐書』 권219 열전 제 144 북적전. 『資治通鑑』 권 200 唐紀 16 高宗 顯慶5년, 6320쪽.

55) 『新唐書』 권219 열전 제144 북적전.

56) 이성재, 앞의 논문, 163쪽에서도 거란 및 해, 회홀 등이 당에 대해 대규모로 저항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고구려가 이렇게 유리한 국제정세 속에서 그들 反唐세력들과 연계하지 못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앞에 말했듯 고구려가 북방 제민족들에 대한 외교정책을 이미 660년 이전에 강화 시키고 있었다고 본다면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단순히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며, 혹시 고구려가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속된 당의 고구려 원정 실패가 결국 이들 제민족들이 당에서 이탈해 나가는 결과를 초래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거란의 경우는

또한 660년 8월 鄭仁泰가 悉結·拔也固·僕骨·同羅 등 철록 제부를 격파하기 시작하여 663년까지 매해 이들에 대한 정벌 기사가 나타나고 있어<sup>57)</sup> 북방민족들이 하나 둘씩 당 측에서 이탈해 나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들 철록 제부의 이탈 역시 655년 고구려가 설연타에 행했던 외교책과 유사한 외교책을 적극적으로 행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이들 친당적 북방세력이 당에서 이탈하는 이유로는 1차적으로 당의 고구려 정벌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645년 당 태종의 고구려 친정의 실패 이후 당은 요동 지역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을 펼쳤으나 그다지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고<sup>58)</sup> 오히려 지속적인 당의 공격을 방어해 내고 있던 고구려의 군사력이 주변 제 민족들에게 보다 높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660년을 전후하여 거란과 해, 철록 제부와 같은 일부 세력들이 당에서 이탈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원인으로서는 당 내부의 세력변동과 그로 인한 혼란을 들 수 있다.<sup>59)</sup> 655년 당나라의 황후였던 王씨가 폐서인되고 武황후가 새로운 황후로 책봉되면서 꾸준히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었다. 그 결과 660년 10월이 되면 무황후가 당 내부의 정권을 완전 장악하면서<sup>60)</sup> 무황후의 반대파를 축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원인 이외에 또 하나의 원인으로 고구려의 외교 강화를 상정해 볼

남생 땅평시의 기사를 통해 보듯 이 시기 이후 고구려 측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김호동은 이러한 유목민족들이 대거 반당노선을 택한 이유로 당이 추구하던 기미지배의 특성상 고종 말년 측천무후 즉위에 이르는 시기 당 중앙정부의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당의 압력이 약해졌음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김호동, 앞의 논문, 175~176쪽.)

57) 『新唐書』 권 3 고종 顯慶 5년 8월, 龍朔 원년 10월, 2년 3월 『舊唐書』 권 4 고종기 용삭 3년 1월.

58) 金瑛河, 2000, 「高句麗 內紛의 국제적 배경-唐의 단계적 戰略變化와 관련하여-」 『韓國史研究』110 40~41쪽

59) 김호동, 앞의 논문, 175쪽.

60) 『資治通鑑』 卷 200 唐紀16 高宗 顯慶5년

수 있다. 고구려는 설연타를 비롯한 주변 제 민족들에 대한 외교 교섭을 강화함으로써 당의 군사력이 고구려에 집중되는 것을 막고자 시도해왔을 것이다. 그리고 거란에 대한 공격에서 보듯 어떤 경우엔 힘의 우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 세력의 이탈을 부추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의 꾸준한 외교 노력의 강화가 660년 이후 이들 북방 제 민족들의 대규모 이탈을 유도해냈고, 결국 대당전쟁 막바지에까지 이들은 고구려 편에서 싸우거나 혹은 최소한 당의 고구려 정벌군에 참여하지 않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 북방민족의 이탈은 고구려로 하여금 656~665년까지 당에 대한 사신 파견을 중지하고 당과의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게 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본다. 물론 결과적으로 고구려가 당과의 전쟁에 패배했지만 멸망 전까지 고구려가 북방 제민족과의 관계에서 이루어 낸 성과는 상당히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북방 제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전략으로 혹은 보다 독립적인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치밀하게 자신의 파트너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당 건국 초기에는 아직 돌궐 세력도 존재하고 있었고, 당 역시 내부 반란 세력에 대한 수습을 위해 고구려와 북방 세력에 대한 영향력을 다투지는 못하고 있다. 고구려 역시 당의 초기 혼란과 돌궐의 지속적인 당에 대한 공격 속에서 굳이 북방 제 민족에 대한 외교적 교섭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630년 돌궐의 험리가한 생포를 전후해 거의 대부분의 북방 제 민

족들이 당에 복속되거나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며 당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고 있으며, 거란과 해 등의 몇몇 세력은 아예 고정적으로 당의 세력권에 편입되어 고구려 정벌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고구려는 630년 이후 어느 시기엔가 이들에 대한 외교를 강화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660년 이후 거란 및 해, 철륵 제부 등 북방 제 민족의 대다수를 당의 세력권에서 이탈시키는 데 성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친당적 북방 세력의 이탈과 재편은 당의 중앙정치 상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것이나 여기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이루지 못했으며, 중국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무리한 추정이 많았음을 인정하는 바이다. 많은 지적과 방향 제시를 바란다.

주제어: 高句麗, 突厥, 契丹, 鐵勒, 詰利可汗, 薛延陀

투고일: 2008년 9월 23일, 심사개시일: 2008년 9월 25일, 게재확정일, 2008년 10월 9일

## ■Abstract ■

## The Changes of Relationship between Koguryo and Northern Races in the 7<sup>th</sup> Century

Kim, Ji-Young

The kingdom Sui(隋)/Tang(唐) period which organized common system and culture around china is important era in east asia. Unlike Sui(隋), Tang(唐) which build a continued unified kingdom is more important to the near country having relations with china. Specially, the founding and growth of Tang(唐) have close relations with the survival of the North-east countries and races including Koguryo(高句麗).

It's easy to guess the importance of the mutual-assistance structure between Koguryo(高句麗) and Northern races to survive against the aggression of the unified china after Sui. The stud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ang(唐) and these northern races from beginning of Tang(唐) to the fall of the Koguryo(高句麗)(668) might be the one roundabout way to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Koguryo(高句麗) and these northern races. Specially, after year 630 (after the fall of DolGuel), the conflict between two powerful countries, Koguryo(高句麗) and Tang(唐), in north-east region is the matter of primary concern to these northern races, and their survival might depend on which side they are on.

During the early years of the Tang(唐), Tang(唐) have friendly relations with Koguryo(高句麗) because Dolgyul(突闕) still existed and Tang(唐) needed to overcome internal rebellion. Also, Koguryo(高句麗) might not need to build diplomacy relations with northern races because Tang(唐) was still in a state of

disorder and Dolgyul(突闕) still existed.

But the year 630 when the Kahn Hilly(詰利可汗) was arrested, most northern races surrendered or established friendly relations with Tang(唐) and several races joined in Tang(唐)'s military forces to attack Koguryo(高句麗). Because of this situation, after year 630, Koguryo(高句麗) started to strengthen the diplomacy with northern races. As a result of this relations, Koguryo(高句麗) succeeded in Malgal(靺鞨), Seup(靺) and Silwy(室韋)'s not joining the member of Tang(唐)'s military forces to attack Koguryo(高句麗) in year 645, and lead Sulyounta(薛延陀)'s alienation after failing of expedition to Koguryo(高句麗). Although there was Sulyounta(薛延陀)'s ruin from this alienation and Chulluk(鐵勒) tribal's subjection to Tang(唐), Koguryo(高句麗) still strengthen diplomacy with northern races. Finally after year 660, Koguryo(高句麗) succeeded in making Keolan(契丹) and foreign forces, which had been subjected to Tang(唐) after year 630, and Chulluk(鐵勒) tribal, which had been subjected to Tang(唐) after Sulyounta(薛延陀)'s ruin(646), are alienated from Tang(唐).

These northern race's alienation lead Tang(唐) not to make fully focus on attacking Koguryo(高句麗), and not to destroy Koguryo(高句麗) immediately after Bakjai(百濟)'s ruin. When I thought that these northern race's alienation was not made by chance because these alienation was so helpful to Koguryo(高句麗), It's proper that these alienation was from Koguryo(高句麗)'s continuous diplomacy effort with northern races. Naturally, we may think that Koguryo(高句麗)'s strengthening of the northern diplomacy and northern race's alienation and reorganization might have close relations with Tang(唐)'s central politic situation, but above all things, Koguryo(高句麗)'s strong military forces defending Tang(唐)'s frequent attack is more important fact to get the reliability from the northern races.

**Key words:** Koguryo, Dolgyul, Keolan, Chulluk, Kahn Hilly, Sulyounta